

어디 갔을까? 책을 펼쳐둔 사람은.

1521년에 그려진 <책과 책상>은 서양 미술의 역사에서 순수한 책 정물로 그려진 첫 작품이다. 북구에서도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그림은 일찍이 없었다. 헛된 세상의 가치를 경고하든, 인문주의자의 고전 학식을 가리키든 책은 늘 그림 한 구석에 자리잡은 보잘것없는 소품이었다.

### 17세기 이후 미술작품에 등장한 책

마리아가 탁자 머리에 펼쳐둔 책이 점차 커지면서 단순한 기도서에서 신적 지혜의 상징으로 변모하다가 마침내 백합꽃병을 밀어내고 그림 중앙을 차지한 것은 1428년 로베르트 캄핀의 <수태고지>에서였다. 또, 서재의 성 히에로니무스나 인문학자 에라스무스가 펼쳐둔 책이 점차 그림의 줄거리로부터 떨어져나와서 그림 한편에 독자 공간을 점유하는 일은 16세기에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책 그림이 그 자체만으로 어엿한 하나의 작품으로 등장한 것은 17세기 이후에나 본격화된 현상이다. 그나마 템페라나 유화로 그린 정물화가 아니라,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지혜의 책 위에서 날개를 휘적대는 엠블럼 동판화 따위가 첫 시작이었다.

뒤러의 작은 붓 소묘가 그려진 것은 16세기 초. 일상적 대상과 소재를 다룬 정물화는 등장인물과 줄거리가 없다는 이유에서 팔시를 면치 못하던 시대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에 기댄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는' 줄거리는 비극에서처럼 역사화의 기본 열개를 이룬다. 역사화가 화가에게 부와 명성을 약속한다면, '시작과 중간과 끝이 없는' 정물화는 살아 있는 자연 대신 약취 나는 동물의 시체나 빛 바랜 두개골을 베끼는 '시시껄렁한 그림'이라고 비아냥받기 십상이었다. 그런 인문적 시각에서 주제 가치에 따른 장르의 위계가 싹뻗었다. 두셋에서 여남은 명의 등장인물이 줄거리를 구성하는 역사화가 단연 주제 위계의 꼭대기 계단을 차지하고, 초상화와 풍경화가 그 뒤를 이은 다음, 정물화는 제일 아래 계단에 머무른다.

정물화라고 해서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

다. 파라시오스와 경합하던 제옥시스가 포도송이를 그려서 새들을 그림 안으로 유인했던 일, 아펠레스가 뱀 그림을 그려서 소란스런 새들의 지저귀음을 일시에 멈추게 한 일은 자연과 겨뤄서 승리한 예술의 전설로 빛난다. 그러나 미술이 <성서>의 교훈적 가치를 붓으로 설교하는 일을 맡으면서, 시화예술이 회화예술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주장하면서, 미적

재현형식보다 미술의 그릇에 담아내는 내용의 무게가 작품의 가치를 가늠하는 잣대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책을 아무리 멋들어지게 그렸더라도 성자의 모습이 누락됐다면 가치 있는 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르네상스 이후 미술을 보는 인문적 관점은 죽은 개의 물골을 보고는 코를 싸잡고 고개를 돌리지만 죽은 개의 실감나는 재현을 보고는 감탄을 아끼지 않는다는 아리스토텔레스 모방이론으로부터 오히려 등을 돌린 셈이다.

### 카타그라파 기법으로 그린 책의 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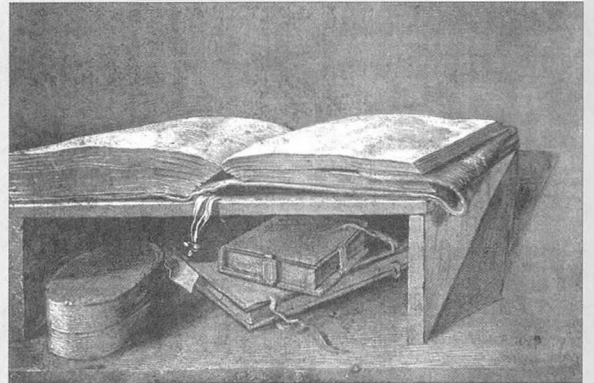
밋밋한 송판을 대어 붙인 책받침에 가죽장정을 입힌 두꺼운 책이 누웠다. 내려보는 시점이 비스듬히 돌아가서 재현대상이 단축법으로 그려졌다. 대상의 생김새를 워나 아래나 측면에서 본 입체적 시점을 제공하는 3/4 프로필은 고대 화가 키몬이 사람의 표정을 그리면서 처음으로 실험했던 '카타그라파' 기법이다.

뒤러는 무심한 책의 살아 있는 표정을 카타그라파 기법으로 그렸다. 책받침의 오른쪽 모서리에 짧은 그림자가 붙었다. 책받침 옆부분을 처음

## 비로소 '소품' 신세에서 벗어나다

알브레히트 뒤러의 <책과 책상>

노성두 | 미술평론가



알브레히트 뒤러, <책과 책상>, 1521년, 빈, 알베르티나

에는 역 원근법으로 높이 세웠다가 톱으로 잘라낸 모양이다. 잘려나간 부분에 짙은 그림자를 덧그려서 톱질자국을 감춰줬다. 책받침 아래 가로 누운 두권의 책과 등그런 상자가 바닥 경사와 일치한다. 그렇다면 뒤러는 책받침과 두꺼운 책을 먼저 그린 다음에 양옆의 나무를 비스듬히 잘라내고 나머지 소재들을 그려 넣었을 것이다. 펼쳐진 책의 가름선과 등그런 상자의 종축은 선형 원근법의 소실선으로 봐도 좋다. 반면, 책받침 아래 아무렇게나 놓인 두권의 책은 색깔 없는 정물 구성에 활기를 더하고 보는 이의 주의를 끄는 애교점이다.

뒤러의 그림은 같은 해에 그린 <서재의 성 히에로니무스>를 예비하는 준비 소묘에 해당한다. 그러나 책 정물의 역사에서는 더없이 중요한 분수령을 이룬다. 뒤러가 그린 풀꽃 무더기나 옹크리고 앉은 들토끼도 그 자체로 아름답다. 훗날 풍경화나 동물화의 부분그림으로 활용되느냐 여부는 그림의 가치를 흔들지 못한다. 그것이 책 한권이든 풍명이 한마리든 상관없이 화가의 온전한 탐구와 애정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